

‘ 사 람 ’ 이 주 인 공 인

세 상 을 꿈 껌 니 다 .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 장애 인권활동
- 아동·청소년·교육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 국제 인권활동
- 기타 공익활동
-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1

장애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송(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청구소송 수행
-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과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수행
-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입법운동
-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
- 수화 소모임 '수다' 운영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과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지평과 두루는 방광암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방광암 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방광암을 진단받은 중증장애여성(피해자)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병원은 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검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의료행위 시 다르게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서의 '제한'에 해당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소정의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4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연구용역은 선진국의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률 및 정책 등 비교연구, 장애인 당사자 및 시설운영 종사자 인식조사, 장애인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에 있어 예상되는 중앙과 지방의 과제 및 법률 개정·재정 마련, 장애인 탈시설 방안 및 탈시설 정책 전환과 준비 등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관한 행정심판청구 수행

지평과 두루는 한 서점주인이 설치한 장애인용 경사로의 철거를 주장하는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도로점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수행하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은 위 건물에 설치된 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서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청구는 경산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경산시와 서점이 극적으로 협의하여 경산시의 부담으로 건물의 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활동

두루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입양 절차를 중앙·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며 입양이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십대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입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문활동

두루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십대성매매의 알선·현장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하고, 십대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취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현장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들이 소년재판을 받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십대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회법률단 활동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라며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5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 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두루는 국회법률단으로 합류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주요 활동

-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대리
- 아동학대형사사건 피해아동 대리, 학대피해아동 파양사건, 친권자지정심판청구사건 대리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및 무고사건 피해자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보호치료시설 현장점검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제도·정책 상시 자문
-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를 위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규제 등 입법운동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 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위한 입법운동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법률자문, 심리지원팀을 위한 법률지원 안내서, 의료 Q&A집 집필·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보호 정책 연구 및 자문
- 수용자 자녀와 가족지원시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기독교세진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비영리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내서 집필
- 미혼한부모 가족지원시설 애란원 법률자문 및 미혼모 법률교육, 경기도섬터 종사자 법률교육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아동권익보호학회,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서대문구 아동권리옴부즈퍼슨 활동, 소년선도심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03

사회적경제 · 기업 공익활동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 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베어베터에 대한 사회적기업 법률진단 프로그램 시행
- SK SUPEX추구협의회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주관 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참여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소셜 벤처 대상 법률자문(지원대상 : 마리몬드, 두손컴퍼니, 플리, 아쇼카한국, 이원코리아 등)
- 기획재정부, <유럽의 협동조합법 원칙> 정리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 SK SPC 프로젝트 법률지원(지원대상 : 공공미술프리즈, 위사켓 등)
- 한국사회투자 임팩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법률지원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협력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법률상담(지원대상 : 더블루피엠씨, 트리디비 등)
- 동그라미재단 LCP 프로젝트 법률지원(지원대상 : 글로벌 이너피스 등)
-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법률지원(지원대상 : 사부코리아, 어웨이크 등)
- 크레비스파트너스와 업무협약 및 협력 기업 대상 법률교육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 참가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대상으로 법률리스크 진단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펼치고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법률리스크 사전진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의 첫 번째 법률실사 대상이 된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현재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4월부터 약 한 달간 베어베터의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법인일반, 인·허가 및 규제, 자산, 재무 및 회계, 주요 계약, 지적재산권, 인사·노무 등의 영역을 망라한 폭넓은 법률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임팩트금융 법률지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임팩트 금융추진위원회'가 5월 출범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평과 두루는 임팩트금융에 적합한 법적 구조를 만들고 투자 형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평과 두루는 임팩트금융의 법적 주체가 될 법인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임팩트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직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평과 두루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하는 루트임팩트와의 협력

지평과 두루는 2015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루트임팩트가 '헤이그라운드'라는 이름의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야심차게 개장하여 다양한 입주사를 루트임팩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맞은 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헤이그라운드 신축 과정에서 루트임팩트를 위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헤이그라운드 오픈 이후에는 마리몬드를 비롯한 입주사를 상대로도 다수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루트임팩트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성수동 소셜 벤처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및 토론회 참여

지평과 두루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하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하여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그 결과 9월에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12월에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되어 두루가 발제를 하였습니다.



UN 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권고 입법적 이행방안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4차 최종권고의 이행방안을 입법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이주·외국인, 노동, 사회보장 등 30개 분야에 대한 우려 사항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에서는 각 권고 사항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민 체류자격과 출입국 문제 해결 및 대응

지평과 두루는 한 해 동안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사기 사건에 휘말려 체류자격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 인정자, 비자신청 불허로 가족결합권을 침해받는 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제에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이주민 관련 단체와 개인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04

국제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송, 임금체불 관련 소송
-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 이주민센터 친구 정기 상담 및 법률자문
- 농·축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법률자문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자문
- 미얀마 한인회 법률자문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러시아 중소기업연합회, KOTRA 러시아무역관 법률자문
- 외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 법률자문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원 조교의 지속적 괴롭힘 관련 법률자문
-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가족결합권이 침해된 외국인에 대한 법률자문
- UN 사회권위원회 4차 최종권고에 대한 입법적 이행방안 연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참여
- 2017 PILNet Global Forum 및 컨퍼런스 참여
- 이주민 대상 법률교육

**지뢰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대리**

두루는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로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두루는 피고의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행정소송에서는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법원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는 두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5

기타 공익 활동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대리**

지평과 두루는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초기에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여성성희화의 도움으로 지평과 두루의 법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 선거운동의 자유 · 정치적표현의 자유 등 / 선거기간 중 집회 · 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대리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노동 / 서울여성노동자회 법률자문
- 통일 /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지사담
- 인권 전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 인권 전반 /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국가배상소송
- 인권 전반 / 군 훈련소 내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인권 전반 / 군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인권 전반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 · 4 · 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이음 장애인자립센터 법률자문
- 시민단체 /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소가 한국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열매나눔인터네셔널 법률자문
- 시민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시민단체 / 아름다운재단 법률자문
- 기타 / 지뢰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 기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지평과 두루는 선거의 자유,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다양한 공익법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지평은 강용주님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주님은 전남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1999년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02년과 2010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평은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근거가 된 보안관찰 갱신처분이 위법하고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용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조항인 제18조 제2항과 제4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06

공익법 교육 · 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 두루 공익변호사 추가 채용
- 로펌 공익전업변호사 정기회의 참여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회의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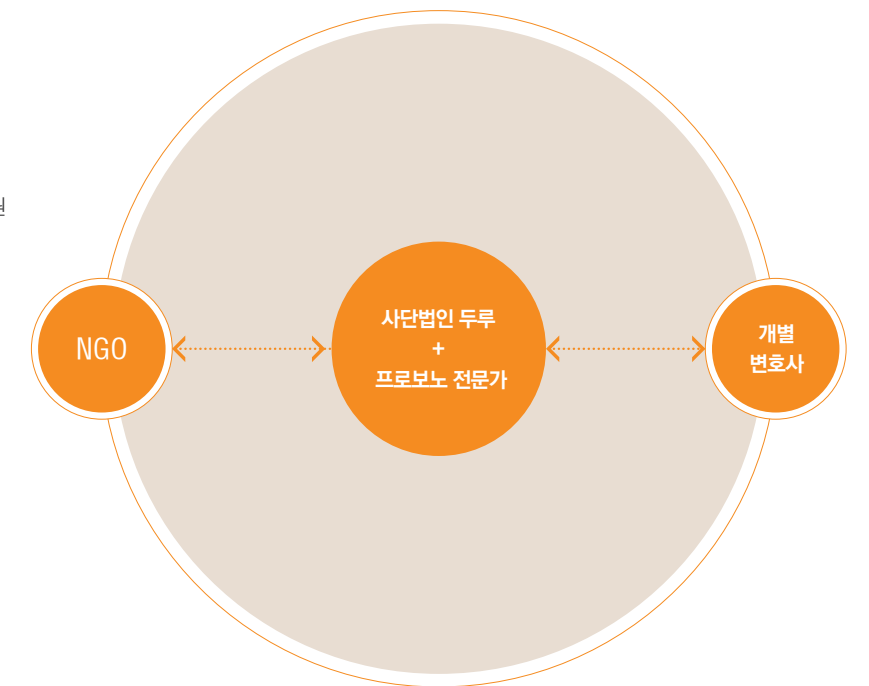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 심포지엄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4월(상반기)과 9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공익단체와 로펌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결성되어 1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을 합쳐 로펌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활동 중개시스템 구축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 · 인권단체 사이에서 공익법활동을 중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GO가 쟁점화하는 의제들을 공익활동을 원하는 개별 변호사에게 연결
공익법영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법활동 매뉴얼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및 참여

두루는 7월 5일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부제 : 변호사 공익활동 내비게이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내비게이션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라운드테이블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발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지평과 두루는 8월 16일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평은 내부 교육을 통하여 난민 지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넓히고, 향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두루는 여름과 겨울 각 3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영창제도 등 관련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지구인의 정류장,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에 파견되어 단체의 활동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기록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사건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으면서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역할, 개선될 제도가 다른 법적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재 학생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가 두루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지평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이라는 것뿐이었지만, 두루 홈페이지를 통해 두루에서 제가 학부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보낼 곳은 여기서'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루는 다른 기관과 달리 수습생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수습생들로 하여금 공익변호사의 삶에 대해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어서 공익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기록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사건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으면서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입을 모아 '공익소송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공익변호사는 수임료도 많이 받지 않으니 결과가 나빠도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고,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돌아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원보람 학생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익소송은 변호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대단한 분들, 인권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소수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익변호사는 소수의 특별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가 지닌 용기, 법률지식 및 인권 감수성 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공익소송은 혼자서 아닌 여러 사람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변호사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공익소송은 주로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 자체가 크고, 소송 수행 방식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한 사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민사법, 형법, 공법 분야의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외에도 행정적인 여러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과 그 책임을 위해서는 뛰어난 법률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익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님들은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역할, 개선될 제도가 다른 법적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